

사회복지실습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

Stress and Stress Coping that Students Experienced in their Social Work Field Practicum

김희수, 안정선, 배진형
한국성서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Hee-Soo Kim(hs500@bible.ac.kr), Jeong-Sun Ahn(ajsfire@bible.ac.kr),
Jin-Hyung Bae(jbae@bible.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습지도 현황과 학생들의 실습스트레스 및 대처를 파악하고, 실습지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경험하고 수업을 수강한 서울 및 경기북부 4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개 설문분석 결과, 실습생은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실습환경, 실습업무부담 영역의 순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였고,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중심, 사회적지지 추구, 회피중심 전략 순으로 활용하였다. 실습경험에 따른 실습스트레스의 차이에 있어서는 현장체험 유무, 봉사 시간, 실습사전교육 참여 유무에 따라, 그리고 슈퍼비전의 정기성과 빈도, 전공 만족도, 실습 및 슈퍼비전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습교육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사회복지현장실습 | 스트레스 | 스트레스 대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esent condition of social work field education, students' stress/stress coping strategies in their field practicum,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actors related field education.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202 students who finished their social work field practicum and took their course work in 2012, from 4 different universities in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 Seoul. As the result, in the area of stress, the highest rank was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skills, the second was the environment of field practicum, and the third was the burden of tasks that they had to perform. About the coping strategies, it was found that students utilized 'problem-solving focused' the most, pursuing 'social support' as the second, and 'avoidance' strategies as the least. Factors influencing on differences of stress level depending on field work experiences were whether they had previous field experience, how much time they participated in previous volunteer activities, whether they attended orientation for their field practicum, regularity/frequency of supervision, the satisfaction on their social work/welfare major, and the satisfaction on their field practicum or supervision.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for development in field education system were presented.

■ keyword : | Social Work Field Practicum | Stress | Stress Coping |

* 본 연구는 한국성서대학교 2012년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3년 09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0월 10일

수정일자 : 2013년 10월 23일

교신저자 : 안정선, e-mail : ajsfire@bible.ac.kr

I. 서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교수업에서 학습한 이론을 현장에 접목하는 공식적인 훈련을 통하여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하는 실천적 교과목이다. 현장실습은 사회복지 이론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학생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복지에 대한 정체성 함양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생의 전공 진로에 있어 절대적 중요성을 가진 실천 교과목이라 하겠다[17][34].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40]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을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실천과정 및 기술을 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훈련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필수이수교과목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를 포함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증진, 전문직 정체성 및 사명감의 확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41]. 그러므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며, 실습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조직의 일원이자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직·간접적인 업무 및 관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습 관련 경험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은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및 이론에 대한 현장감과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7].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습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습 시작 전에는 지식 부족이나 자신감 저하 등으로 막연한 불안과 긴장, 실습 중에는 실습환경,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실습생간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및 활동 내용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다[36]. 또한 실습을 마친 후에는 기술, 지식의 부족, 역할갈등 및 사전에 기대한 만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실습 경험으로 위축되거나 좌절감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3][14][33][34].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실습 기간 동안 경험한 어려움이나 회의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결되거나 슈퍼비전 등을 통하여 건강한 방향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36]. 스트레스에 대한 불충분한 처리는 이후의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전공에 대한 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을 달성하고 역량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키워내고자 한다면, 실습과정 중에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체계적 노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실습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실습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 즉, 실습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3], 실습 만족 및 전문적 성장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어 왔으며[10][11][18][25][26][32][37][43], 휴먼서비스 인접분야인 보육학, 간호학, 치위생학 분야에서의 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이들 각 분야는 전문가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실습을 필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 교육과정, 자격취득을 위한 조건 등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실습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습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대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실천현장 및 학교의 실습지도 현황과 학생들의 실습 스트레스 및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을 파악하고, 실습지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실습스트레스와 대처

1.1 실습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해 개인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넘어서

자원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인데,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는 결과는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칭한다[34]. 스트레스 증상은 스트레스 자극이 개인이 조정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거나 개인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의 반응이다. 스트레스는 그 존재여부를 넘어, 지나치게 많거나, 본인이 가진 방어 메커니즘이 부적절할 때 신체적·심리적 장애나 다른 정신적 장애까지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은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만한 상황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12]. 같은 원인이라도 스트레스를 대하는 개인이나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실습 스트레스가 독립적으로 정의된 문헌은 아직 찾아볼 수 없지만 사회복지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실습 활동에 긍정적이지 않은 요인이 되며,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34].

사회복지 실습생들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일소하며[35],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트레스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기반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9][15][20-22][27][28][31][38]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김영희[6]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상 필요한 조건에 개인의 역량이 부적합하거나 조직이 제공한 직무환경이 개인의 욕구에 부적합한 상태로 설명되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을 저하시키고 소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신분으로, 기관에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전공 실습생의 경험과도 연결성이 있다. 정리해 보면, 실습스트레스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실습생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는 필수 교과목 이수를 위한 모든 절차 및 과업 수행 내에서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역량의 적절한 활용에 부적합을 경험하는 환경적, 대인적, 업무적, 개인적 어려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2 대처와 대처 전략

대처란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선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외적, 내적 요구를 관리하고자 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된다[30]. 초기의 대처 연구는 자아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상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질에 따른 대처성향을 연구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환경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대처 행동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Lazarus와 Folkman[52]은 대처를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 창출된 내·외적인 요구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Tobin과 동료들[53]은 스트레스대처의 유형을 관여대처와 비관여대처로 구분하여, 관여대처란 스트레스원 또는 정서나 사고에 초점을 두는 반응인 문제해결, 사회적 지지 추구를 의미하고, 비관여대처란 스트레스원이나 자신의 정서 또는 사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응 즉, 철회와 부인을 이룬다고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39].

한편, 스트레스를 감소 또는 제거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사용되는 실질적 활동, 행동, 사고는 대처전략이라고 부른다. 대처전략이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어떠한 형태의 반응이며 이는, 태도 및 실제로 취한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51]. Lazarus와 Folkman[52]은 대처전략을 2가지로 분류하였다.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상황자체를 변화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문제중심 대처전략,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변화를 주기 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거나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정서중심 대처전략이 그것이다. 신혜진[23]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피하지 않고 맞부딪혀 해결해 나가는 접근 대처전략과, 문제를 부인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 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두려고 하는 회피 대처전략으로 구분했다. 한편, Amirkhan[50]은 문제해결중심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뛰어들어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추구전략은 역경에 처했을 때 정서적이든 도구적

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인 접촉 욕구를 반영하여 해결하려는 것으로, 회피중심전략은 문제 상황에 맞부딪히기 보다는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외면하려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전략들은 처한 상황에 대해 취하는 실제 행동 및 태도로서, 이는 문제해결, 접근대처 등의 개인적 전략, 또는 사회적 지지추구라는 주변 환경을 활용한 전략인 적극적 양상측면, 회피 혹은 정서중심 완화라는 소극적 양상측면 등 크게 2가지 맥락에서 구분되어져 왔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해결중심 전략, 사회적 지지추구 전략, 회피중심 전략이라는 Amirkhan[50]의 분류를 활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고찰

사회복지현장실습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조혜영[35]은 조사대상자들의 전체 스트레스 증상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범주 별로는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 순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개인요인, 슈퍼비전요인, 실습요인이라는 독립변인과 전체 스트레스 증상과의 상관관계는 개인요인 중 성별이, 실습요인 중 교육환경, 역할모델, 업무부담, 전문지식 및 기술, 대인관계가 전체 스트레스 증상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유의미함을 발견하였다.

주영애[36]는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에서의 스트레스 대처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실습생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내용은 실습지와의 원거리·휴식공간부족 등의 실습환경, 지시와 슈퍼비전 부족·배려 없음 등의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성, 실습생간 비협조적 태도와 비교의식 등의 실습생간의 관계,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및 상황판단의 어려움 등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과제물 수행, 업무의 모호성, 프로그램획과 일지작성 등의 활동내용들이었다. 대처전략으로는 문제해결중심전략, 사회적 지지추구전략, 회피중심전략의 순으로 사용하였으며, 문제해결중심전략이 가장 높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대처능력 증진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36]. 연구 질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대상은 전문대학 실습생이었고, 지역 및 조사도구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프로그램 기획·사례관리·자원개발 등의 교육 필요성이 증대된 최근의 실습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임상실습을 교과과정 중에 시행하고 있는 전공인 치위생학, 간호학, 보육학 등 분야에서 실습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식에 관한 관련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치위생학 실습 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론과 지식의 실제 적용 어려움, 현장상황과 실습내용과의 차이, 관련 분야 지식 부족이 높게 나타났으며[29], 역할영역, 이상과 가치 영역이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발견되었다[16]. 간호학에서도 역시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24][42][44],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만족도는 물론이고 우울을 유발하며 문제중심적 대처능력 또한 떨어뜨림을 보고하고 있다[19]. 보육학에서는 실습생의 스트레스는 교수실제에 관련된 전공지식과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또한 대처전략에 있어 스트레스의 근원을 피하는 소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4].

기타 외국 문헌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증상 측면에서 현장실습지도가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짐을 발견하였다[47]. 실습을 앞둔 염려, 클라이언트와 일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및 본인이 받은 사회복지 교육의 충분성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수 과목 수 및 자원봉사를 포함한 실무 경력은 두려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됨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48]. 최근의 연구들은 실습생들의 실습긴장과 감정반응 등을 주제로, 실습지도자와의 관계 및 실습환경의 중요성, 대처 전략으로서의 비공식적 사회자원의 활용상태를 제시하고 있다[45][46].

기존 문헌들은 사회복지실습의 스트레스가 낮지 않고, 이는 신체·심리·행동적 증상을 가져오며 개인적·슈퍼비전·실습요인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한다. 반면 연구에 따라 실습 스트레스는 그리 높지 않

지만 물리적 실습환경이나 슈퍼바이저·동료·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과업수행에 있어서의 부족함에서 상대적 스트레스를 느끼며, 이에 대해 문제해결중심 전략으로 대처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12년 여름방학 혹은 2학기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습을 경험하고 수업을 수강하는 서울북부(2개교)와 경기북부(2개교)의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직접 설문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조사는 실습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방학 중 실습생의 설문조사는 실습이 완료된 이후 시점인 2012년 9월 13일에서 29일까지 2학기 실습생 설문조사는 실습종결 시점인 12월 6일에서 13일까지 각각 실시되었다. 총 207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5개의 설문을 제외하고 202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먼저, 실습스트레스의 측정은 정무성과 조혜영[34], 김순례와 이종은[5], 김인숙 외[8]의 도구를 근간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33문항으로 실습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이상과 가치의 차이의 6가지 영역으로 세부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표 1]. 실습스트레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61이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Amirkhan[50], 신혜진[23]의 스트레스대처전략 척도를 토대로 주영애[36]가 실습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33문항으로 문제해결중심, 사회적 지지 추구, 회피중심 대처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영역	하위영역	문항	신뢰도
실습 스트레스	실습환경	5	.743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9	.880
	실습업무부담	4	.608
	대인관계 갈등	4	.644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7	.730
	이상과 가치의 차이	4	.836
스트레스 대처	문제해결중심	11	.821
	사회적 지지추구	11	.748
	회피중심	11	.642
일반적 사항 및 실습지도 현황	실습생/실습지도자 및 실습지도의 특성(기관/학교) 실습기관의 특성 전공 및 실습만족	23	해당없음

문제해결중심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는 측면이며, 사회적 지지 추구는 역경에 처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인 접촉 요구의 반영을, 회피중심은 문제 상황에 맞부딪히기 보다는 외면하려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1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대처전략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810이었다.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3. 자료분석

설문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사항 및 실습지도에 따른 실습스트레스 차이 결과를 알기 위해 차이검증(t-test)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체 202명 중 남자 60명(29.9%), 여자 141명(70.1%)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194명(96.5%)으로 전체의 약 90%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3학년이 149명(74.1%), 4학년이 52명(25.9%)이었으며, 52명(82.8%)이 단독 전공자, 그리고 176명(88.9%)이 졸업 후 사회복지분야로의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실습 관련한 기타 경험에서 실습이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가 115명(57.2%), 100시간 이상이 72명(35.8%)으로 대부분이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혀 없는 경우도 14명(7.0%) 있었다. 이 외 직장체험이나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은 36명(17.0%)에 불과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명)	비율 (%)	구 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60	29.9	연령	20대	194	96.5	
	여자	141	70.1		30대 이상	7	3.5	
학년	3학년	149	74.1	전공구분	단독 전공	164	82.8	
	4학년	52	25.9		복수 전공	32	16.2	
진로	졸업 후 사회복지 진로 계획 있음	176	88.9		관련 경험	실습전 자원봉사 경험유무	100시간이상	72
				100시간미만			115	57.2
	졸업 후 사회복지 진로 계획 없음	22	11.1	없음		14	7.0	
				실습전 직장체험 인턴십 경험유무		있음	36	17.9
없음	165	82.1	없음	165	82.1			

IV. 연구 결과

1.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 현황

1.1 실습지도자의 특성과 슈퍼비전

실습지도자의 일반적 사항과 실습지도 시의 슈퍼비전 현황은 [표 3][표 4]와 같다. 성별은 남자 61명(30.5%), 여자 139명(69.5%)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실무경력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72명(35.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3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곳도 13곳이 보고되었다. 직급을 살펴보면, 과장 내지 팀장인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다. 각종 복지관이 53.8%로 가장 많았고 보호 및 생활시설이 14.1%로 그 다음이었다. 기관 당 실습생의 수는 7.1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실습지도자 및 기관의 특성

구 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61	30.5
	여자	139	69.5
직급	평직원	39	19.6
	주임, 선임, 대리	28	14.1
	과장	58	29.1
	부장	28	14.1
	기타(팀장)	46	23.1
실무 경력	3년미만	13	6.6
	3년이상-5년미만	33	16.3
	5년이상-10년미만	72	35.6
	10년 이상	64	31.7
실습 기관 구분	모름	16	7.9
	각종 복지관	107	53.8
	보호 및 생활시설	28	14.1
	의료시설	9	4.5
	학교, 청소년관련 시설	17	8.5
	가족 및 다문화관련 시설	3	1.5
	재단, 협회, 단체 등	22	11.1
	상담관련시설	4	2.0
	기타	9	4.5
	실습생수	기관전체 평균 실습생 수	7.11

슈퍼비전이 약속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54.0%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슈퍼비전의 유형에서 개별슈퍼비전은 거의 매회 마다라고 답한 경우가 88명(44.2%)이었고, 거의 슈퍼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35명(17.6%)으로 나타났다. 집단슈퍼비전은 106명(53.3%)이 매회 마다 진행된다고 하였고 개별슈퍼비전과 유사하게 28명(14.1%)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실습지도방법의 경우 중복응답 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과제활용(64.0%), 직접관찰(52.5%), 사례자문(5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방법은 컴퓨터와 온라인(10.5%), 역할극 및 역할시연(11.0%)이었다. 특히, 녹음과 녹화방법은 1.5%로 매우 미미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표 4. 실습 슈퍼비전 현황

구 분		빈도 (명)	비율 (%)
수퍼비전의 정기성	약속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108	54.0
	주로 실습지도자의 필요시 비정기적	51	25.5
	주로 실습생의 필요시 비정기적	40	20.0
개별 수퍼비전 횟수	매회 마다	88	44.2
	3회(일) 1회정도	23	11.6
	5회(일) 1회정도	41	20.6
	거의 없었음	35	17.6
	기타	12	6.0
집단 수퍼비전 횟수	매회 마다	106	53.3
	3회(일) 1회정도	18	9.0
	5회(일) 1회정도	33	16.6
	거의 없었음	28	14.1
	기타	14	7.0
실습지도 방법 (중복응답)	사례	105	52.5
	직접관찰	105	52.5
	과제 활용	128	64.0
	역할극 및 역할시연	22	11.0
	과정기록 검토	101	50.5
	컴퓨터, 온라인활용	21	10.5
	Co-Work	43	21.5
	코칭, 가르치기	101	50.5
	책임기와 토론	46	23.0
	기타	18	9.0
	녹음 및 녹화	있음 없음	3 197

1.2 학교실습지도 현황

학교실습지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실습 전, 학교 오리엔테이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7%로 보고되었다. 실습기간 중에 실습지도 교수 및 조교와 의사소통을 한 경험에 대해서는 86.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59.1%가 실습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습기간 중에 수업이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32.3%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1.3 실습생의 만족도

전공 및 실습에 관한 만족도를 보면, 전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76(.92)로 비교적 높았으며, 실습전반에 관한 만족은 3.70(1.14), 실습수퍼비전 만족은 3.63(1.19)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슈퍼비전에 관한 만족은 다소 낮고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표 5. 학교 실습지도 현황

구 분		빈도 (명)	비율 (%)	
실습 수업 관련	실습 전 학교 오리엔테이션 여부	있음	179	92.3
		없음	15	7.7
		결측치	8	
	본인 실습기간 중, 실습수업 진행 횟수	없음	31	15.6
		3회 미만	44	22.1
		3회-4회	59	29.6
		5회-9회	20	10.1
		10회 이상	45	22.6
		결측치	3	
	실습 지도 관련	실습기간 중 교수 및 조교와의 소통 '가능' 여부	예	172
아니오			27	13.6
실습기간 중 on-off line 소통 여부		예	130	67.7
		아니오	62	32.3
		결측치	10	
실습기관 방문 여부		있음	117	59.1
	없음	81	40.9	

표 6. 전공 선택 및 실습전반에 관한 만족도

전공 선택 및 실습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 전공 선택 만족도	3.76	.92
실습 전반 만족도	3.70	1.14
실습기관의 슈퍼비전 만족도	3.63	1.19

2. 실습스트레스

실습생이 느끼는 전반적인 실습스트레스를 10점 만점으로 표시하게 한 결과, 5.88(1.97)로 나타났다. 실습생들은 중간을 다소 상회하는 실습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실습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습생들이 비교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영역은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2.86)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실습환경(2.56)과 실습업무부담(2.37)으로 조사되었다. 실습스트레스 전체의 평균은 2.16(.47)으로 크게 높지 않았다.

표 7. 하위 영역별 실습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정도	평균	표준편차
실습환경	2.56	1.16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 모델	1.76	.96
실습업무부담	2.37	1.13
대인관계갈등	1.87	1.09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	2.86	1.26
이상과 가치의 차이	1.68	.89
평균	2.16	.47

실습스트레스 전체 영역에 있어서 비교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조사된 상위 영역들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실습스트레스 세부 내용에 대한 순위¹⁾

영역	내용	평균(SD)	전체 순위
전문 지식 기술 부족	프로그램준비, 실행주도 어려움	3.22(1.67)	1
	C't에 대한 지식 부족	3.06(.97)	2
	C't 문제 대처, 해결능력 부족	2.99(1.02)	3
	C't의 의사소통기술 부족	2.96(1.85)	4
실습 환경	기록을 적절히 못함	2.74(1.12)	7
	사회복지지식 불충분	2.70(1.13)	8
실습 업무 부담	학교교육내용의 현장적용 어려움	2.95(1.05)	5
	실습생을 위한 공간 부족	2.88(1.33)	6
	실습생 역할이 불분명함	2.44(1.18)	10
실습 업무 부담	점재된 돌발 상황에 항시 대비	2.65(1.19)	9
	지나치게 많은 실습과제	2.39(1.10)	11

실습스트레스 상위순위는 대부분 실습생의 지식 및 기술의 부족영역이었고 특히, 프로그램준비와 실행, 클라이언트 이해와 의사소통 등 개입기술, 기록 등이 높게 나타났다. 실습환경 및 실습업무 부담과 관련하여서 실습생을 위한 공간부족, 학교교육내용의 현장적용 어려움, 돌발 상황에서의 항시 대비, 역할 불분명 및 지나친 과제로 인한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실습지도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로서 기능하거나 대인관계의 갈등, 이상과 가치차이의 영역은 다른 스트레스요인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실습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문제해결중심, 사회적 지지추구, 회피중심 대처의 순서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표 9.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영역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 대처	3.77	.52
사회적 지지 추구	3.15	.59
회피중심	2.31	.53

실습생들은 모든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수용(4.21),

스트레스 상황은 누구나 있지만 현명한 대처가 중요함을 인식(4.19), 실습상황에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4.11), 실습지 적응을 위한 상황 파악에 주력(3.93), 부과된 업무량을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하려고 목표수립(3.93)하는 등 문제해결적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과제나 문제가 생기면 실습생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음(4.02), 실습생들끼리 실습에서 느꼈던 감정을 털어놓음(3.89),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실습 동료의 위위에 기분이 나아짐(3.68) 등 주로 실습생들의 지지체계 구축을 주요전략으로 사용하였다. 회피중심 전략은 비교적 활용도가 낮으나 실습이 무조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3.31),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3.12) 등 회피중심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4. 실습 스트레스의 차이

실습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실습생의 성별, 연령, 실습시기, 학년 등에 따른 실습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지도자의 성별, 직급, 근무연한 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실습생이 가지고 있는 현장체험과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여유무의 경우, 실습스트레스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세부 영역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실습생 경험별 스트레스 하위영역 차이

스트레스 하위영역	실습생 경험	N	평균	SD	t
지식 및 기술 부족	직장체험 및 인턴십경험 있음	36	2.64	.82	-1.88*
	직장체험 및 인턴십경험 없음	165	2.90	.75	
	실습 중, 교수 및 조교와의 소통 있음	172	2.81	.75	-1.98*
	실습 중, 교수 및 조교와의 소통 없음	27	3.13	.83	
이상과 가치의 차이	자원봉사 100시간이상	72	1.40	.52	-2.01*
	자원봉사 100시간이하	129	1.59	.75	
실습 환경	실습오리엔테이션 있음	179	2.52	.80	-2.70**
	실습오리엔테이션 없음	21	3.11	.83	

*p<.05, **p<.01, ***p<.001

1) 상위 1/3이상인 순위,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합이 3.5이상(일반적으로 5점 척도에서 3.5점 이상은 스트레스정도가 상당히 높음을 의미)

다음으로 실습 슈퍼비전에 따른 실습스트레스의 차이와 학생의 실습 및 슈퍼비전 만족에 따른 실습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표 12]와 같다. [표 11]에서와 같이 슈퍼비전의 정기성, 개별슈퍼비전과 집단슈퍼비전의 실시정도에 따라서 실습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슈퍼비전이 약속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와 개별과 집단슈퍼비전이 매 실습일마다 진행되는 경우 실습생의 스트레스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전반 및 슈퍼비전의 만족도에 따라서 실습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실습슈퍼비전의 경우에는 만족, 보통, 불만족한 집단 간에 차이가 모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슈퍼비전에 따른 실습스트레스의 차이

	슈퍼비전	N	평균	SD	F	사후검증
실습스트레스	약속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실시(A)	108	2.05	.47	6.25**	A≠B A≠C
	실습지도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실시(B)	51	2.27	.40		
	실습생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실시(C)	41	2.29	.49		
	개별 슈퍼비전 거의 매일(매회)(A)	87	2.07	.48	4.71*	A≠C
	주 1-2회 정도 (3-5일 1회 정도)(B)	63	2.16	.43		
	거의 없음(C)	34	2.35	.43		
	집단 슈퍼비전 거의 매일(매회)(A)	105	2.05	.46	9.46***	A≠B A≠C
	주 1-2회 정도 (3-5일 1회 정도)(B)	50	2.24	.42		
	거의 없음(C)	27	2.43	.48		

*p<.05, **p<.01, ***p<.001 (슈퍼비전의 경우, 기타의견 제외한 사례 수 반영)

표 12. 학생 만족에 따른 실습스트레스의 차이

	학생 만족	N	평균	SD	F	사후검증
실습스트레스	사회복지전공선택 만족(A)	126	2.08	.46	4.99**	A≠C B≠C
	사회복지전공선택 보통(B)	52	2.27	.45		
	사회복지전공선택 불만족(C)	21	2.34	.48		
	실습 전반 만족(A)	126	2.02	.45	22.41***	A≠B A≠C
	실습 전반 보통(B)	39	2.29	.35		
	실습 전반 불만족(C)	33	2.54	.38		
	실습슈퍼비전 만족(A)	120	2.16	.44	25.93***	A≠B A≠C B≠C
	실습슈퍼비전 보통(B)	43	2.25	.39		
	실습슈퍼비전 불만족(C)	35	2.57	.37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 및 학교의 실습지도 현황과 학생들의 실습스트레스 및 그에 대한 대처를 파악하고, 실습지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실습지도 현황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각종 복지관에서 실습한 경우가 53.8%,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실습지도자가 83.6%, 기관 전체 실습생수 평균이 7.11명이었다. 또한 실습 슈퍼비전은 44.2% (88명)가 개별슈퍼비전이 매회, 53.3%(106명)가 집단슈퍼비전이 매회 이루어졌다고 답하였고, 실습지도방법으로는 과제 활용(64.0%), 직접 관찰(52.5%), 사례자문(52.5%)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전 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은 92.3%(179명)가 있다고 하였으며 실습기간 중 3회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63.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6.4%(172명)가 실습기간 중 교수 및 조교와 소통이 가능하였고, 59.1%(117명)가 학교에서 실습기관방문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습지도자의 실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가 6.6%(13명)이었고 개별슈퍼비전은 17.6%(35명), 집단슈퍼비전은 14.1%(28명)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한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법적 기준에서는 1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실습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장의 현실은 모두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평가와 관련하여 1명의 실습지도자 당 5명이하의 실습지도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습지도자가 많지 않은 보호 및 생활시설에서 이와 같은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실습생의 스트레스는 10점을 기준으로 5.88점으로 중간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다. 세부 영역별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내용을 보면, 5점 척도 기준으로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2.86), 실습환경(2.56), 실습업무부담(2.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

처는 문제해결중심 전략(3.77), 사회적 지지 추구 전략(3.1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영애[3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즉, 실습생들은 비교적 자신들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접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며 이는 긍정적인 결과라 하겠다. 한편 회피중심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 실습이 무조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3.31)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3.12) 등의 경우도 있어서 실습생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주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습생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실습생의 경험, 그리고 슈퍼비전, 전공 및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습생 개인의 직장체험·인턴십 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 중 교수 및 조교와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지식 및 기술 부족 영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 이상과 가치의 차이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p < .05$), 실습사전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실습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p < .01$). 또한 실습슈퍼비전에 있어서도 슈퍼비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실습스트레스가 낮았던 반면($p < .01$), 슈퍼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습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습생들의 사회복지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실습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실습교육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전공 교과 내용을 현장 및 실천중심 방향으로 운영하는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느끼는 전문지식과 기술 영역에서의 부족함을 해소하도록 도움 필요가 있겠다. 전문지식 및 기술 영역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등을 통한 실습활동에의 주도성 발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 적절한 기록,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대

처 및 해결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실습경험 전 관련 선수과목 이수를 강화하고 현장 및 실천 중심의 교과목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 및 현장이 요구하는 직무기술과 능력에 대한 분석, 이를 교과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과목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실습 교과목 이수 이전에 자원봉사활동, 직장체험, 인턴십 등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해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각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과 혹은 비교과 과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현장 방문,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의 인턴십, 직장체험,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습교과목 이수의 조건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을 직시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간접 경험하여, 그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실제화 하여야 하겠다.

셋째, 학교에서 실습 전에 운영하는 사전교육은 실습 교과목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사전교육에 참석한 경우 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실습환경 영역에서 느끼는 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실습 환경 영역에는 실습 목적, 실습생 역할, 실습생 공간, 학교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 실습생에 대한 배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의 사전 실습사전교육을 통해 실습의 목적과 실습생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현실적 실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실습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담당교수 및 실습 조교, 그리고 실습을 수행 중에 있는 동료 수강생들과의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실습생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및 주변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실습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담당교수, 실습조교, 동료수강생 및 선후배 등이 활용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방법으로 실습 진행기간 중의 수업,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소통의 장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실습 과정 중에 담당교수 및 조교와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경우에 실습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실습 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지지 추구의 대처를 비교적 많이 활용하였다는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섯째, 현장에서의 실습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실습지도 계획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실습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영역은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인데, 이는 곧 실천과 연결되는 지식 및 기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습생의 실천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는 결국 실습기관의 교육체계, 실습지도자의 지도에 의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충분한 슈퍼비전 시간을 보장하며, 교육적 목적을 전제로 한 적절한 양의 실습 업무 계획, 그리고 과제 활용, 직접 관찰, 사례자문과 더불어 SNS의 활용, 역할극 및 역할시연 등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는 실습지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습생들은 개별 혹은 집단 슈퍼비전이 매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실습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였으며, 슈퍼비전의 장은 결국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자, 사회적 지지 체계 활용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실습생의 스트레스대처를 위한 실습교육체계 개선안을 종합해보자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정리된다.

분류	학교차원	기관차원	학생차원
내용	현장 및 실천중심 교과내용 개편	명확한 실습계획과 업무분장	실습경험 전 다양한 현장체험
	실습경험 이전 현장경험이수 제도화	적절한 양의 과제와 업무할당	필수이수조건 충족 및 사전교육 필수 참여
	실습사전교육 개설 및 필수 이수화		
	실습 중, 교수 및 조교와의 소통창구 운영 (on-off)	정기적인 슈퍼비전 실시 (개별/집단)	다양한 지지자원 및 소통체계 활용

그림 1.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실습교육체계 개선

참고 문헌

- [1] 강홍구, “사회복지실습 목표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실습만족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9집, pp.1-21, 2009.
- [2] 강홍구, “실습오리엔테이션이 실습목표달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1집, pp.55-76, 2010.
- [3] 강홍구, “실습선행과정요인이 실습목표달성도에 미치는 영향: 실습슈퍼비전과 실습세미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5집, pp.26-50, 2011.
- [4] 김선영, 서원경, “보육실습 현장에서 실습생이 들려주는 스트레스와 대처”, 아동학회지, 제31호, pp.135-150, 2010.
- [5] 김순례, 이종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98-106.
- [6] 김영희, *중간관리자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식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7] 김은정,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8] 김인숙, 장호경, 박수호, 송소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339-347.
- [9] 김정은, 성희자, “직무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6권, 제1호, pp.187-213, 2013.
- [10] 김정훈, *실습지도내용이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학과 학부 4학년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1] 김태순, 황혜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전문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제9권, pp.97-126, 2009.

- [12] 김혜영, “청년기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연구, 제3권, 제1호, 2006.
- [13] 남숙향,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대처방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14] 문미숙,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 제4권, 제1호, pp.15-27, 1998.
- [15] 박경자, 오윤진,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슈퍼비전 및 직업 만족과의 관계 연구: 슈퍼비전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0권, pp.7-34, 2013.
- [16] 박미영,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따른 만족도와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제6권, 제4호, pp.243-249, 2006.
- [17] 박미정, *지역사회복지관의 실습지도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18] 박종엽, 이호선, “슈퍼비전 체계속에서 슈퍼바이저와 실습생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실습생의 실습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4호, pp.5-40, 2009.
- [19] 박현주, 장인순,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4-23, 2010.
- [20] 서대석, 박미은, 서진, “사례관리에서 자원연계 방해요인이 사례관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4호, pp.179-209, 2011.
- [21] 선수경, 임현승, 강성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1호, pp.135-144.
- [22] 송유미, “사회복지사의 역할특성과 직무스트레스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2권, 제3호, pp.251-272, 2006.
- [23] 신혜진,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4] 양남영, 문선영,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16-225, 2011.
- [25] 오승환, “사회복지실습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권, 제2호, pp.105-121, 2005.
- [26] 윤현숙,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전공 학생들의 실습 전·후를 비교로*,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7] 이동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소진요인이 이직의도와 조직시민행동에 미친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2호, pp.129-149, 2009.
- [28] 이영화, 임왕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414-428, 2011.
- [29] 이정화, 전은숙,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제9권, 제1호, pp.137-143, 2009.
- [30] 이창식, 김윤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의 중재효과: 남녀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183-213, 2004.
- [31] 이형렬, 신용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RI연구논총 제14권, 제1호, pp.141-172, 2012.
- [32] 이해경,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3] 전화연,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성사학위논문, 1984.
- [34] 정무성, 조혜영, “사회복지전공학생의 현장실습 스트레스 증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0권, pp.93-118, 2009.
- [35] 조혜영,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6] 주영애,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의 스트레스 대처*

- 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 실습생을 중심으로, 상지대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37] 최민영, *현장실습경험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8] 최수찬, 김상아, 이정은, 박웅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대한산업의학회지*, 제19권, 제4호, pp.259-267, 2007.
- [39] 최정아, "한국 중학생의 환경적, 개인적 대처자원과 대처전략의 관계: 자기효능가의 매개 효과와 성별의 차이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 pp.301-329, 2009.
- [40] <http://kcswe.kr/>
- [41] http://lic.welfare.net/lic/ViewCourseSubject.action#tab_02
- [42] 한선희, 유혜순, "일 지역 간호대 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30-139, 2012.
- [43] 한주빈, 오혜경, 오봉욱, "사회복지실습생의 현장실습 평가에 관한내용 분석 연구: 실습생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2권, pp.147-171, 2010.
- [44] 황성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 [45] A. Litvack, "Emotional Reactions of Students in Field Education: An Exploratory Study," *J. of Social Work Education*, Vol.46, No.2, pp.227-242, 2010.
- [46] C. Barlow and B. L. Hall, "What about Feelings?: A Study of Emotion and Tension in Social Work Field Education," *J. of Social Work Education*, Vol.26, No.2, pp.399-413, 2007.
- [47] C. E. Munson, "Stress among Graduate Social Work Students: An Empirical study," *J. of Education for Social Work*, Vol.20, No.3, pp.20-29, 1984.
- [48] C. R. Gelman, "Anxiety experienced by Foundation-year MSW Students entering Field Placement: Implications for Admissions, Curriculum, and Field education," *J. of Social Work Education* Vol.40, No.1, pp.39-54, 2004.
- [49] D. L. Tobin, K. A. Holroyd, R. V. Reynolds, and J. K. Wigal,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 Research* Vol.13, No.4, pp.343-361, 1989.
- [50] J. H. Amirkhan,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pp.1066-1075, 1990.
- [51] J. W. Berry,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pp.17-37. in *Acculturation :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edited by K. Chun, P. B. Organista, and G. Mari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52]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 1984.
- [53] D. L. Tobin, K. A. Holroyd, R. V. Reynolds, and J. K. Wigal, "The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Strategies Inventory," *Cognitive Therapy & Research* Vol.13, No.4, pp.343-361, 1989.

저 자 소 개

김 희 수(Hee-Soo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1993년 3월 ~ 1994년 4월 : 김종옥가족치료연구소

- 1994년 3월 ~ 2000년 8월 : 태화장안종합사회복지관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2004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9월 ~ 2013년 9월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가족복지 등

안 정 선(Jeong-Sun Ahn)

정회원



- 1991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5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임상사회사업전공(문학석사)
- 1995년 ~ 2006년 :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팀장

- 2007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행정전공(사회복지학박사)
- 2007년 ~ 2009년 2월 : 태화사회복지연구소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교수
- 2009년 3월 ~ 2013년 9월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슈퍼비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조직 인사관리)

배 진 형(Jin-Hyung Bae)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전공(문학석사)
- 1994년 4월 ~ 1995년 3월 : 시

- 립동부아동상담소 상담원
 - 1997년 1월 ~ 12월, 2002년 9월 ~ 2003년 1월 : 시립동부아동상담소 Part Time 상담원
 - 2006년 ~ 2007년 : 미국 일리노이주 윌멧 가족치료센터 Clinical Professional Staff
 - 2007년 12월 : Loyola Univ. Chicago, School of Social Work (Ph. D.)
 - 2009년 3월 ~ 2013년 9월 현재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사회복지, 다문화 및 국제사회복지, 수업설계